

8/1

⑥ 2001년 암흑통일민족당이 대선을 치른다.

3. 8월 15일 여성통일한마당 행사기획(안)

15일 3시 주진별부

11 명칭

11시 둘째연대 716=9시

2) 일시, 장소: 2011년 10월 15일 ~ 16일 9시. 2010년 10월 15일 ~ 16일 9시.

3) 행사내용

22

卷之三

사진행사 : 전여대협 문선, 아줌마 노래단 공연, 청년리 사당
개회식

三

卷之三

- 참가자 소개, 내인디게이트 (B부문 선생님들)
- 대회사

내 회사

성지연설 : 정부정책 : 부산·울산
문화 공연

남북여성공동결의문 발표 고통기록서문! - 여협
[제작: 신아모 헤럴드]

4) 참가자 조작

부동산가격 : 1,000 → 전세가격 : 200

5) 기타사안 **증기기설비**

5) 기타사안

한국 우편의 역할

$\Rightarrow \{x\} = \{x_1, x_2, \dots, x_n\}$.

【군동사 지역구】

7478: Brin hazard moder

★ 전여는 2022.8.26. 3. 2012 ★

支那の政治 - 政治家と政治組織

(四六七)

[] 시장과 가격과의 관계

7月15日、正28号、正24号、正25号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전통적인 윤리학과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도입해 새로운 철학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여호우 2842

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1) 6.15년 죽대토론회 여성간담회 보고
여명 6월, 지난해는 노동미역스케치, 무언aker(2018), 농민...여전히
취재수첩, 여전히 무언aker - 여성스케치, 갈등해결자 12부

국가수어청축(국25) 7월 17~18일 실무회답 보고

기부금·증정금, 기부금의 일부가 주민행복, 문화체육, 교육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6. 15. 뮤직어 고설(解說) (15) 3) 페인트

3) 행정행사와 관련 보고
→ (제작자) 행정부서에 대한 보고
4) 나주 여성한마당 관련 회의보고
→ (제작자)

2. 7월 23일 여성추진위원회의 결과 보고(남측 여성통일한마당 관련)

7월 23일 추진본부 여성위원회는 (약칭) 2001 민족공동행사 여성한마당과
관련한 여성위원장단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측의 여성행사는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틀 안에서 진행한다.
 2. 추진본부 여성위원회에 소속된 각 단체는 단체별로 '(약칭)2001민족공동행사 여성한마당'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3. 행사의 일체경비는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담당한다.
 4. 행사의 참가인원 조직과 동원은 통일연대 여성조직이 담당한다.
 5. 개최한 시간은 8월 15일 오전 9시로 한다.(당일 2시 추진본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
 6. 통일연대 이외의 여성단체는 대표단을 중심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전여대협 대표 방북관련 보고

1. 방북관련 대표선정

8월 4일경 추진본부 실무협의에서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300인이 방북하기로 결정한후

청년학생추진위 차원(34개단체소속) 40여명 배정 한총련 차원에서는 10여명 배정 -> 지역총련 차원으로
만 배정하고 부문단위는 청년학생통일대회때로 하기로 함, 따라서 전여대협 차원으로 배정이 안됨

8월 7일경 여성차원에서는 20여명 배정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으로는 10여명 배정 -> 반미여성회,
전여농 등 해서 전여대협 차원으로 1인 배정됨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대중적으로 방북대표단으로 선정되었던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장님이 가시기로
급하게 중앙에서 결정

8월 9일경 실무적 준비 마침

2. 방북대표 준비활동

학교차원 -> 경북대학교에서 대경총련차원으로 가는 사회대부회장님이 계셔서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차원의 선전전과 도서관학우만남등을 가져가면서 방북내용을 많이 알렸습니다.

전여대협 차원 -> 결의서를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국대학 총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선전하면서 전
여대협 차원에서 알려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전달사항들을 대학차원으로 준비해서 총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방북준비내용

의장님 편지글

자주교류 제안내용 -> 문서참조

4. 방북활동내용

15-17일까지는 여성단체분들과 공식적 행사와 만남은 가져가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8일부
터 돌아올때까지는 청년학생추진위차원 한총련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제 여학생대표단이 오지 않아서 직접적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학생위원회 분을
만나 간접적으로 총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정
확히 총화를 하고 이후 자주교류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5. 이후 총화 및 후속작업

1) 실제 전여대협 차원의 총회대회를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방북에 대한 총화글을 작성해서 전여대협
차원에서 총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북바로알기, 이북여성바로알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후 자주교류 계획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진행하면서 대학차원의 자주교류 계획을 고민합니다.

청년의 기백으로 여성의 장인함으로 조국통일을 완수하자!

보냄 :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

받음 :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생대표단

일자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8월 15일

용도 : 8월 15일 이후 자주교류사업을 위한 계획서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6.15공동선언이라는 대명제 아래 전민족이 하나가 되는 모습! 새 세기 첫 광복절 남과 북 해외가 평양에
모여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습! 또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이 이제는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조국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는 청춘을 바치어가는 우리들이기에 지금의 이 모습이 더 감동적일거
라 생각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가치를 더욱 높이들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의 자주를 이루는 그 길이 바로 조국통일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여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생대표단과의 꾸준한 교류와 만남 그리고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여대협은 청년학생통일대회에 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 청년학생통일대회 때 여학생부문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관철하는데 있어 청년학생통일대회가 성사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6.15공동선언 관철에 청년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표현함과 동시에 범청학련, 한총련
이 실질적 방북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년학생통일대회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여기에서 여학생
들의 주동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학생부문행사의 내용으로는 자주교류사업의 전망을 그려보는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여대협에서는 올해 일본군 위안소 답사단을 꾸려 일본군 위안부(종군위안부) 문제를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의 정세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이후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자주교류사업의 전망을 그리는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
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